



배포일시	2023. 3. 30. (목)	담당부서	사무처장	이상태	062)607-5205
			돌봄지원팀장	오윤옥	062)607-5230
자료구성	총 2쪽	보도일시	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광주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“근무형태 다양화”의 시대 열었다

-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비, 개인 선호 근무형태 반영 근로조건 개선 -

-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(원장 조호권)은 직영시설인 북구·서구·광산구 종합재가센터 전체 돌봄관리사(요양보호사)를 대상으로 개인 선호 근무형태에 따른 “근무형태 다양화 시범운영”을 4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.
 - * 돌봄관리사는 전생애 돌봄에 따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영역에 맞추어 종사자 의견을 수렴한 호칭이며,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돌봄제공인력을 일컫는다.
- 최근 고령화 및 여성 경제 활동률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전 연령층의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. 돌봄제공인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로 인식되고 있으나 복지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우리 주변의 돌봄제공인력들을 볼 수 있다.
-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이처럼 대부분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재가서비스 돌봄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전 일제 시범운영을 서구·북구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 종합재가센터의 주요 사업인 민간곤란 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적이 2021년 월 평균 216건(1,183시간)에서 22년 397건(1,419건)으로 83%이상 증가하였다.

-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양은 물론 서비스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. 특히 종합재가센터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내 긴급돌봄서비스, 광주⁺돌봄 중 가사지원, 동행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.
- 이에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업무의 지속성 및 서비스의 적시 매칭을 위해근무형태 다양화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. 돌봄관리사 개인 선호에 따른 전일제·반일제·시급제·인력풀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, 그 결과 전일제 19명, 반일제 16명, 시급제 11명, 인력풀 41명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. 또한 추가적으로 전일제 7명을 채용 예정이다.
- 더불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생활임금 적용(시간당 11,930원), 원거리 교통수당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소속 종사자들에게 ‘행복한 일자리’를 제공하고 있다.
- 한편, 종합재가센터 3개소는 “따뜻한 돌봄, 촘촘한 돌봄, 원스톱 돌봄”을 목표로 광주시민대상 긴급돌봄, 광주다움통합돌봄, 방문요양, IoT 기기 활용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에서 누리는 광주형사회서비스를 실현하는 핵심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.
- 조호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은 “광주광역시 민선 8기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하여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첨병역할을 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